

한국의교사연구회 2012년 11월 10일

Christopher Kaplonski, "Collective Memory and Chingunjav's Rebellion", *History and Anthropology*, 6-2/3, 1993.

## I. 서론

### 1. 역사를 보는 두 가지 패러다임

제임스 조이스 : 하나의 '진실'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역사---Truth

밀란 쿤데라 : 기억과 망각의 권력적 투쟁의 장으로서의 역사---Memory

2. 저자의 이론적 입장 : We can only know the past in the epistemological present.

### 3. 사례 : 1756-1758년 몽골 왕자 친군자브의 청 만주족에 대한 반란

친군자브는 서북몽골 오이라트 부족 코토고이트 가문의 수장. 그는 칭기스칸의 후손인 칼카몽골족. 친군자브는 건륭제의 오랜 신하였음. 1756년 건륭제에게 자신의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끌던 만주군에서 이탈, 몽골군만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킴. 친군자브의 상소는 에르친도르지 처형과 반란을 일으킨 준가르 수장 아무르사나를 신속하게 추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몽골 수장 담바자브를 처별한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었음. 많은 칼카몽골 귀족들이 같은 시기 청에 대한 반란을 일으키고 러시아에 원조를 요청함. 그러나 결론적으로 친군자브의 반란은 실패.

Cf) 아무르사나의 반란. 아무르사나는 준가르의 수장으로, 청의 준가르 복속 및 정벌을 도왔지만 원하는 보상을 받지 못함. 반란을 우려한 건륭제의 명령으로 에르친도르지가 아무르사나를 체포해서 베이징으로 연행하던 도중에 탈출. 이로 인해 에르친도르지가 처형됨. 아무르사나는 러시아 접경지대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 죽음.

### 4. 통설로 제기되는 반란의 원인

- 1) 경제적 예측에서 벗어나려고
- 2) 민족주의적 봉기
- 3) 에르친도르지의 처형

## II. 서구의 설명방식

### 1. Bawden, Rossabi, Nathanson.

이들은 부인하지만, '민족주의'를 읽으려는 의도가 보임. 따라서 반란의 목표를 연합된 독립전쟁으로 상정.

## 2. 비판

1) 준가르와 칼카몽골은 하나의 nation이 아니다. 그들은 1730년까지 서로 전쟁을 벌였고 만주 청조가 칼카몽골을 이용하여 준가르를 막으려고 할만큼 서로 다른 집단. 친군자브와 아무르사나의 연합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음.

2) 또, 이 시기 칼카몽골 반란의 목표는 독립된 몽골 국가 수립이 아니었음. 반란이 성공했을 경우, 칼카몽골 귀족들은 청 대신 러시아에 복속되는 쪽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큼.

3) 친군자브가 이 시기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다른 칼카몽골 반란을 '조직'했다거나, 자신이 반란을 장기적으로 계획했다는 증거 없음.

## Ⅲ. 몽골 측 설명방식

## Ⅳ. 기존 설명방식에 대한 재고

## Ⅴ. 문자역사와 구술역사 : 방법론적 성찰

## Ⅵ. 결론